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7호 [무게 제25686호] 주제 106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자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만리미조선의 불가항력적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가 25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김일성광장은 우리 인민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잊을수 없는 피땀의 원한을 남겼으며 오늘날도 우리 공화국을 삼켜보려고 무모한 핵전쟁도발에 미쳐남뛰는 남강도 미제침략자들을 단호히 쫓아 버리고야말 멸적의 보복의지를 안고 모은 각계층 군중들로 차넘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자!», «우리를 건드리는 자 죽음을 면치 못한다!» 등의

구호편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으며 기발계양대들에는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인의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의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제후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만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김기남동지, 리수용동지, 리만건동지, 김영철동지, 로무철동지, 리용호동지, 김수길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일꾼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노예주약으로 시작되었다. 처회된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1950년 6월 25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가 가장 야만적인 방법과 수단 다 적용하여 전대미문의 인민대학살과 무차별적인 파괴행위를 감행하고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대대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지어 천차만차지 퍼부어 우리 인민을 멸망시키려고 남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봉쳐 조국수호의 성전에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몇은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용당할 교훈을 찾을 대신 오늘날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광분하며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는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봉쇄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한편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전력자산을 몰아다놓고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고 피눈이 되어 남뛰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오늘 우리 앞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언덕과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불장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우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우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연설자는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어 만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전진단결의 성세, 방패가 되어 당중앙위원회를 질사용위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지닌 전진단결의 선군혁명투사,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 적들의 비열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비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서버리고 우리의 정치사상정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선군혁명의 원화지대본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백배으로 강화하면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의 병전조선과 자강력제일제시한 용대한 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총동원력을 힘있게 발명으로써 만리미선구자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미제와 피피호전광들이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과 불세의 군역, 지역지강의 불가항력적위력으로 침략자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연설한 강동지구관광면합기협소 지대인 김로훈은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미제야수들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은 영원히 아물지 않는 역사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말하였다.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수, 침략과

악의 원수라고 하면서 그는 지난세기 50년대에 이어 또다시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이우려는 미제침략자들의 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그는 전체 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앞당겨 집행하기 위한 총동원력을 파감히 발명나가며 반미대결전의 최우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형제산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화는 해방된 조국에서 땅의 주인이 되어 오곡백과를 거두어들이며 애국의 맘을 바쳐가던 순박한 우리 농민들을 피에 주된 미제살인마를 무함히 학살한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지금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은 전대미문의 초강도제재와 압살책동에 여달리다 못해 우리의 최고근엄을 노린 천하무도한 «북수작전»을출발비열한 테러음모행위까지 감행하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사회

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함호인 농업전선을 지켜겠다는 책임감을 간직하고 추계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일풍을 일으켜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불수호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겨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1미시 분철은 조국을 위하여 생흔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가위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1950년대 청년들의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은 언덕과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세대 청년진위들의 심장의 박동을 높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제세결의»를 현수 조작해내고 국악무도한 북침핵전쟁음모사동을 광판적으로 밀러는것은 우리의 사상과제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며 전면도전이라고 규탄하였다.

4면으로 계속





# 모두다 불타는 애국충정의 마음이고 계속 총돌적 앞으로! 전 당, 전 군, 전 민이 산악같이 떨쳐 나섰다

지금 천민군인이 결사의 각오로 가  
우려 당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  
원, 총집중하여 흑심한 가톨릭파를 철거  
히 막고 회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것을 호소하였으니 당의 사상  
과 평등에 무한히 충직한 천민군인들

우려 당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  
원, 총집중하여 흑심한 가톨릭파를 철거  
히 막고 회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것을 호소하였으니 당의 사상  
과 평등에 무한히 충직한 천민군인들

제 믿고 가톨릭의 전두를 전개하였다.  
당의 호소에 회담하여 전행에서 내달  
리는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성, 중앙기  
관들,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각지 가톨릭파가 전두현상에서 결  
사판별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소식을 본사현  
지도부도반들이 계속 보내오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지도반

##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확고한 의지

평양북도안의 협동농민들이 가  
톨릭파에대항하여 결사의 각오로 가  
우려 당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  
원, 총집중하여 흑심한 가톨릭파를 철거  
히 막고 회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것을 호소하였으니 당의 사상  
과 평등에 무한히 충직한 천민군인들

우려 당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  
원, 총집중하여 흑심한 가톨릭파를 철거  
히 막고 회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것을 호소하였으니 당의 사상  
과 평등에 무한히 충직한 천민군인들

제 믿고 가톨릭의 전두를 전개하였다.  
당의 호소에 회담하여 전행에서 내달  
리는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성, 중앙기  
관들,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각지 가톨릭파가 전두현상에서 결  
사판별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소식을 본사현  
지도부도반들이 계속 보내오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지도반

## 효과적인 비배관리방법을 도입

위 대 한 명 도 자  
집정동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형성방법과 영농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용하는데서도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난 어느날 포전을 돌아보  
는 신천군일군들은 생각이 많  
았다.  
당의 의도대로 가톨릭의 전  
두를 잘하는 여기에 올해 농사  
성과가 크게 달려있기때문이다.  
황가들이 들었던 몇해전의 교  
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  
다. 그래서 점도리를 단번히 하  
고 작전하였다. 온 군이 떨쳐나  
우물을 파고 흙방도 막았으며  
물주기도 할것에 내뿜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안심  
할수 없었다.  
농작물이 없었는가? 이런 생  
각을 하며 그들은 여러 농장들  
을 돌아다니고있었다. 강병이포  
를 비롯하여 가톨릭파를 받들어  
있는 수백정보의 논밭이 눈이  
이르게 안겨들었다.  
일군들은 양수장에서 포전  
까지의 거리도 가능해서 포전  
까지도 파쳐보았으며 후지  
밭을 한 강병이포전들의 상태

## 신천군에서

다 알아보았다. 그러면 포전에  
한가지 사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후지밭을 하  
나 김을 매느라 흙을 끌어온  
강병이포전에서는 확실히 다른 포  
전에 비해 가톨릭을 덜 받았던것이  
였다.  
원인은 후지밭을 하거나 호미  
로 흙을 끌어올리면 토양의 실관  
들이 흩어지때문에 땅속의 물  
기층방이 일정하게 역제되는데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논에서도 가  
톨릭파를 막을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이 방법은 물론천이 부  
족하여 논이 마르기 시작한 포  
전을 고치고있는 농장들에서 아  
주 효과적일수 있었다. 흙은 흙  
비라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  
톨릭파를 막을수 있었다.  
일군들은 곧 포전에서 격식없  
는 모임을 열었다. 열면 논쟁이  
 벌어졌다. 어느 한 일군은 직접  
호미로 논바닥을 끌어보기도 하  
고 또 어떤 일군은 논도 후지  
밭을 할수 없었는가를 가늠해보  
았다. 결과 벼포기때문에 논바  
닥을 일정한 깊이로만 끌어주어  
효과를 크게 볼수 있다는것을  
확증하게 되었다.  
일군들은 신심을 가지고 논  
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두를 작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 크게 설계하  
고 길을 찾아주고 긴장하  
게 전투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  
단비가 내린다. 이것은 그  
대 가톨릭을 이겨내는 약비가 되  
어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에서  
강병이밭에 단비가 내린다.  
○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에서 ○  
협동농장에서는 막대식방  
관수와 찍지방식관수, 분수식관  
수, 강우기관수방법을 유기적  
으로 결합시켜 온 온을 내게 하고  
전투에는 강우기관수, 비교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것으로 된다.  
대체적으로 우물들은 받들어  
어 있다. 이렇게 우물자리를 정  
하면 물론천이 받다끼어 있으  
므로 먼에서 물을 끌어오느라  
환은 따로 늘일 필요가 없다.  
농장에서는 강병이영양단지  
모를 포전에 옮겨지을 때 안개  
모를 풀에는 이동하면서 물을  
가운데 총대식관수를 하는 방  
식이 고집되어있고 옷철관가  
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멍이 물  
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  
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강병이영양  
단지를 모를 포전에 옮겨지을  
때 안개 모를 풀에는 이동면서  
물을 가운데 총대식관수를 하  
는 방식이 고집되어있고 옷철  
관가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  
멍이 물을 진행할수 있는 방  
법이 없는가.  
두개의 점식관수방법을 마  
주 불연속적일 모양이 관수  
장치는 물흐르도록 기우고 사  
용한다. 이 관수장치의 아래  
부분에 강병이영양단지를  
가운데 총대식관수를 하는 방  
식이 고집되어있고 옷철관가  
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멍이 물  
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  
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강병이영  
양단지를 모를 포전에 옮겨지  
을 때 안개 모를 풀에는 이동  
하면서 물을 가운데 총대식  
관수를 하는 방식이 고집되어  
있고 옷철관가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멍이 물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 강병이밭에 단비가 내린다

○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에서 ○  
협동농장에서는 막대식방  
관수와 찍지방식관수, 분수식관  
수, 강우기관수방법을 유기적  
으로 결합시켜 온 온을 내게 하고  
전투에는 강우기관수, 비교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것으로 된다.  
대체적으로 우물들은 받들어  
어 있다. 이렇게 우물자리를 정  
하면 물론천이 받다끼어 있으  
므로 먼에서 물을 끌어오느라  
환은 따로 늘일 필요가 없다.  
농장에서는 강병이영양단지  
모를 포전에 옮겨지을 때 안개  
모를 풀에는 이동하면서 물을  
가운데 총대식관수를 하는 방  
식이 고집되어있고 옷철관가  
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멍이 물  
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  
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강병이영  
양단지를 모를 포전에 옮겨지  
을 때 안개 모를 풀에는 이동  
하면서 물을 가운데 총대식  
관수를 하는 방식이 고집되어  
있고 옷철관가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멍이 물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 물원천을 전구 동원하자

개성시에서 불  
확보전투가 전개  
되는 구도에서  
초이 크게 벌어  
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농  
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  
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  
으로 지어야 합니다.》  
당의 호소를 받아들인 그날  
송도저수지에서 벌어난 물  
길은 따라 걷는 일군들이  
였다. 그들이 이 물길을 걷  
게 된다는 사연이 있었다. 지  
속되고있는 가톨릭 파, 풍  
속, 풍속을 비롯한 여러 농  
장들의 물보장에서 많은 물  
을 담고있는 우천저수지의 물  
량이 크게 줄어들었기때문  
이다. 시에서는 가톨릭파를  
원한 전두를 벌리면서 500여  
개의 굴포와 700여개의 우  
물을 새로 파거나 복구하고  
100여개소에 보막이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해일군들은  
이것만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물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천저  
수지에 물을 채워넣을수 있는  
방도를 기어이 찾아내야만  
하였다. 이 저수지가 적지 않은  
면적에 대한 물보장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가톨릭파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기로 결  
심하고있다.

## 현실성있는 물확보작전

개성시 일군들의 사업에서  
물확보실적을 올려야 하였다.  
그후 열린 회의에서 책임일  
군은 이 문제를 상정시켰다.  
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울려  
였다.  
《오늘의 가톨릭파에대항  
하는 자연의 힘과 인간의 의  
지와는 대결전입니다. 모든것  
을 책임지겠다는 믿음이 없  
다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책임일군은 이렇게 설 때  
막혔던 길도 열렸다. 책임일  
군의 이 말은 천백마의 말보다  
모두의 심장을 더 세차게 두  
드렸다.  
일군들이 모용해나서자 시  
업동농장경영위원회의 관  
개부문 일군이 물론천이  
충만한 송도저수지의 물을  
이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  
는 생각을 내놓았다. 그리  
하여 참가자들의 사색은  
송도저수지물리용문제에  
집중되게 되었다. 하지만 가  
수이 열리는 방도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해일군  
들은 이것만으로는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물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천저  
수지에 물을 채워넣을수 있는  
방도를 기어이 찾아내야만  
하였다. 이 저수지가 적지 않은  
면적에 대한 물보장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가톨릭파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기로 결  
심하고있다.

## 지하수를 찾아 효과있게 리용

은 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주고 역  
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있는 이분 일군들의  
일분은는 주목  
할만하다.  
6월에 들어서면서 지속되  
는 가톨릭 파, 풍속, 풍속을  
물문제를 일으켜 대수지 못  
하여 강병이영양단지를  
가운데 총대식관수를 하는  
방식이 고집되어있고 옷철  
관가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멍이 물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강병이영  
양단지를 모를 포전에 옮겨  
지을 때 안개 모를 풀에는  
이동하면서 물을 가운데  
총대식관수를 하는 방식이  
고집되어있고 옷철관가  
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  
멍이 물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강병이영  
양단지를 모를 포전에 옮겨  
지을 때 안개 모를 풀에는  
이동하면서 물을 가운데  
총대식관수를 하는 방식이  
고집되어있고 옷철관가  
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  
멍이 물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 은 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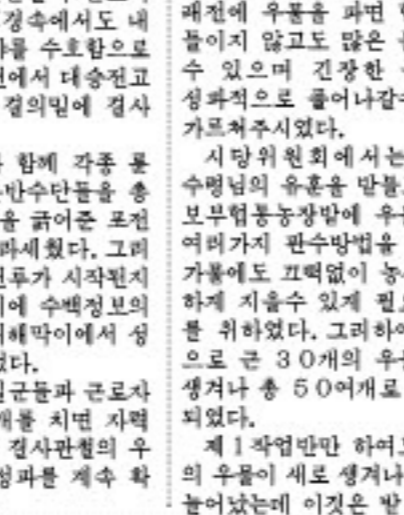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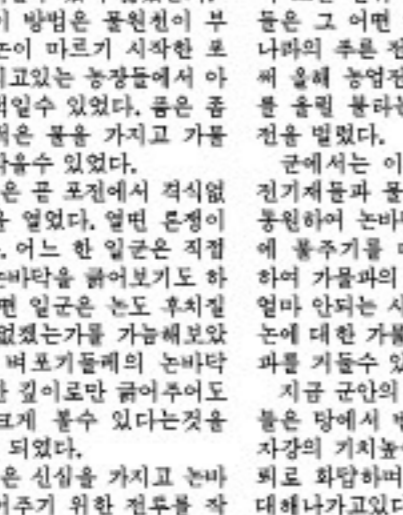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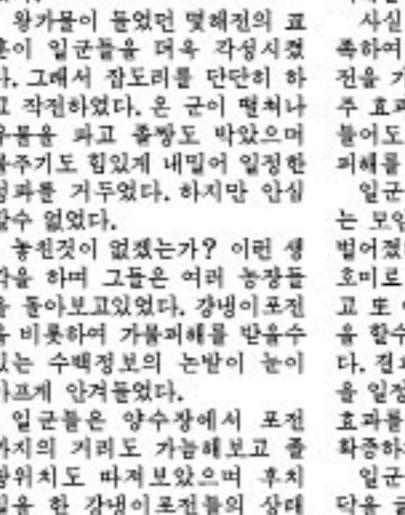
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주고 역  
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있는 이분 일군들의  
일분은는 주목  
할만하다.  
6월에 들어서면서 지속되  
는 가톨릭 파, 풍속, 풍속을  
물문제를 일으켜 대수지 못  
하여 강병이영양단지를  
가운데 총대식관수를 하는  
방식이 고집되어있고 옷철  
관가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멍이 물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강병이영  
양단지를 모를 포전에 옮겨  
지을 때 안개 모를 풀에는  
이동하면서 물을 가운데  
총대식관수를 하는 방식이  
고집되어있고 옷철관가  
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  
멍이 물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강병이영  
양단지를 모를 포전에 옮겨  
지을 때 안개 모를 풀에는  
이동하면서 물을 가운데  
총대식관수를 하는 방식이  
고집되어있고 옷철관가  
운데는 한개의 작은 구  
멍이 물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원천을 전구 동원하자

현실성있는 물확보작전

지하수를 찾아 효과있게 리용

은 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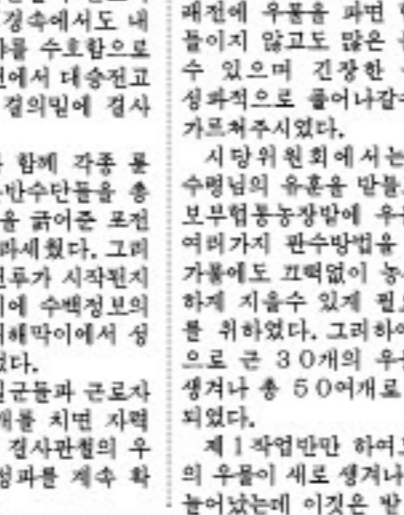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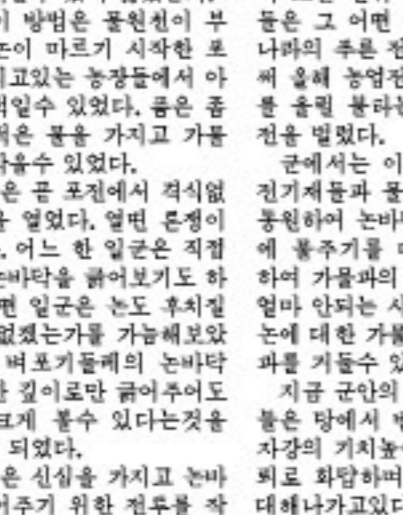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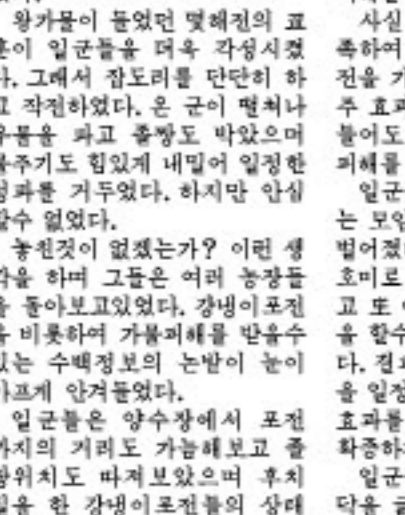


물원천을 전구 동원하자

현실성있는 물확보작전

지하수를 찾아 효과있게 리용

은 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물원천을 전구 동원하자

현실성있는 물확보작전

지하수를 찾아 효과있게 리용

은 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